

1.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

[21학년도 수능] 실천윤리학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.

[21학년도 6월]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라고 본다.

[21학년도 6월] 실천윤리학과 메타윤리학 모두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라고 본다.

[22학년도 6월] 실천윤리학은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경험적 탐구로 당위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의 목표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제시라고 본다.

[20년 수능] 규범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.

[23년 3월] 메타윤리학은 실천윤리학과 달리 도덕적 논의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을 강조한다.

[22학년도 수능] 공자와 노자는 모두 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본다.

[21년 4월] 불교는 자타불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.

[24년 3월] 장자는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,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고 본다.

[21년 10월] 장자는 다함이 없는 도를 체득하여 없음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10월] 장자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불교는 원인과 조건이 없는 존재는 없다고 본다.

[23년 4월]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불교와 도가 모두 내세를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성인의 은혜가 만세에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라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도가는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라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불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도가와 불교는 모두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도가는 이상적 삶을 위해 무지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도가는 백성들이 꾀와 욕심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보며, 무의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.

[22학년도 9월] 도가는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고 본다.

[22학년도 6월] 공자는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,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.

[22학년도 6월] 노자는 나라는 작아야 하고, 백성은 적어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유교는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부터 서게 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불교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생기므로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도가는 인을 실천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.

2. 생명과 윤리

[21학년도 수능] 덕윤리는 공리주의에,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.

[25학년도 수능] 칸트는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도가와 에피쿠로스 모두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본다.

[24년 7월]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플라톤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.

[22년 3월] 도가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도가는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도가와 불교 모두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얹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.

[20년 6월] 공자는 죽음이 내세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.

[19년 10월] 야스퍼스는 죽음이 더 이상 한계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.

[23학년도 9월] 불교는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은 하나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9월] 유교와 불교 모두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불교는 죽음이 오온의 해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고 본다.

[21학년도 수능] 유교와 도가 모두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본다.

[20년 10월]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고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세를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.

[21년 3월] 플라톤은 죽음은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통해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플라톤은 죽음으로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.

[24년 3월] 불교는 불멸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고 본다.

[19년 4월] 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에야 인간은 자신의 고유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.

[22학년도 6월]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본다.

[19년 10월]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라고 본다.

[19년 10월]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상대방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본다.

[21년 4월]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고 본다.

[24년 7월]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생산적 성격이 발달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.

[24년 7월]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교류하는 것이라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에리히 프롬은 참된 사랑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.

[23년 10월]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고 본다.

[21년 3월] 보수주의는 성이 사적 영역에 속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중도주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은 성적 관계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보수주의는 성의 쾌락적 가치 추구와 생식적 가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.

[23년 10월]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고 본다.

[17학년도 수능] 밀은 사회적 역할이 남녀의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.

[17학년도 수능] 밀은 남성이 독점해 온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.

[21학년도 6월] 보부아르는 여성성이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본다.

[20년 10월] 길리건은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

[19년 10월] 나딩스는 인간의 의무는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와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일어난다고 본다.

[19년 10월] 나딩스는 타인에게 공감과 같은 자연적 정서에 따라 행동하기를 권고한다.

[18학년도 6월] 헤겔은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고 본다.

[18학년도 6월] 헤겔은 결혼이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고 본다.

[21년 3월] 유교는 형제가 상하 관계 속에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.

[18년 10월] 유교는 부부를 상호 공경하면서도 분별이 요구되는 관계라고 본다.

[19학년도 6월] 유교는 부부의 예절은 성 역할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본다.

[18년 4월] 유교는 효가 부자 간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.

[18년 4월] 유교는 자식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.

[18년 10월] 유교는 형제가 차이를 인정하고 위계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고 본다.

3. 사회와 윤리

[20년 3월] 순자는 서민의 자손이라도 재능과 덕을 갖추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.

[20년 7월] 칼뱅은 직업이란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귀천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.

[20학년도 9월] 보겔은 기업이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롤스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여 자연적 우연성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노직은 사회가 협동 체제가 아닌 개인 간 자발적 교환 체제라고 본다.

[19년 4월]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고 본다.

[20학년도 9월]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형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고 본다.

[20학년도 9월] 롤스와 노직은 모두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.

[22학년도 9월] 룰스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룰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룰스와 노직 모두 분배 정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고 본다.

[22년 10월] 룰스는 차등의 원칙이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룰스와 노직 모두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칸트는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고 본다.

[24년 10월] 칸트는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칸트는 형벌 자체는 범죄 자체는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칸트와 베카리아는 모두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흉스는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고 본다.

[23년 3월] 흉스는 공통 권리가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.

[24학년도 수능] 흉스는 국가가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이라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흉스와 로크 모두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본다.

[23학년도 6월] 흉스와 로크 모두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흉스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.

[24학년도 수능] 로크는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진다고 본다.

[25학년도 6월]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.

[21년 10월]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이 된다고 본다.

[22학년도 6월] 룰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.

[22년 7월] 룰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본다.

[23년 3월] 룰스는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.

[24년 7월] 룰스는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본다.

[24년 10월] 흉스는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룰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.

[23학년도 9월]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본다.

4. 과학과 윤리

[24학년도 6월] 테일러와 칸트는 레오플트와 달리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9월] 싱어, 테일러, 레오플트 모두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.

[23년 3월] 칸트는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테일러는 싱어와 달리 도덕적 행위 주체성이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본다.

[23학년도 9월] 테일러와 레오플트는 레건과 달리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테일러는 칸트, 싱어와 달리 인간이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.

[24학년도 6월] 테일러는 칸트, 레오플트와 달리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의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고 본다.

5. 문화와 윤리

[22학년도 9월] 순자는 음악이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.

[24학년도 수능] 칸트는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도덕적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.

[23학년도 9월] 베블런은 모든 계층이 추구하는 유행의 양식이 항구적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.

6. 평화와 공존의 윤리

[24년 7월] 칸트와 모겐소 모두 국제 정치의 영역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.

[23학년도 9월] 칸트와 칼통 모두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.

[22학년도 9월] 싱어는 원조가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.

[25학년도 9월] 룰스는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.

[20년 10월] 싱어는 원조가 부국보다 빈국의 빈민을 도울 때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.

[20년 4월] 싱어와 룰스 모두 자선의 차원을 넘어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.

[19년 3월] 싱어는 원조 대상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.

[23학년도 수능] 싱어는 원조의 의무가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싱어는 룰스와 달리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싱어는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.

[25학년도 수능] 싱어는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이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.